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1년 9월 23일(목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사회재난과	담 당 자	• 시설물재난관리팀장 곽문권 ☎440-1851 • 담 당 자 박경환 ☎440-1854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28일부터 전문가와 도로침하 점검 나서

- 노후 지하매설물 및 주변지반, 선제적 점검으로 시민 불안 해소 총력 -

인천시가 지하매설물 손상 등으로 인한 도로침하, 싱크홀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노후 지하매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점검대상은 관내 지하매설물 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 지하매설물 9개소로서 시설의 노후화, 보수 및 보강이력, 지하매설물 주변지반의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.

점검반에는 시, 군·구, 지하시설물관리기관(인천환경공단, 한국전력공사, 인천도시가스, 삼천리가스, 한국가스공사, 인천종합에너지, 미래엔 인천에너지, 청라에너지 등) 및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해 합동으로 점검한다.

주요 점검사항은 ▲지하매설물과 주변지반의 침하정도 ▲지하매설물 주변지반의 균열상태 ▲지하매설물 주변지반의 습윤 상태 및 누수여부 등이다.

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일반, 우선, 긴급 등으로 평가등급을 나눠 등급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.

점검결과 현지시정이 가능한 우선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공사 실시 등 현지시정 조치하고, 긴급등급 시설물은 위험구역 설정, 필요시 사용금지(사용제한) 및 공동(空洞)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를 통해 사전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은 “최근 발생한 백석역 열배관사고 및 석촌동 싱크홀사고 등 지하매설물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후 지하매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관리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” 고 말했다.